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 T 국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5 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장 선교사님 가족이 T 국에 돌아가셔서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절절한 마음과 기도제목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소식지 내용을 조금 생략하기는 했으나 가능한 한 그대로 옮겨 봅니다.

### Jang's Family 의 서른아홉번째 소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도 1 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언약이도 어느덧 3 살이 되었네요. 이제는 말도 어느정도 알아듣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1 나님 은혜와 여러분들의 손 모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1 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그 분과 함께 대화(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1 나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발급해 주는 법이 다소 강해져서 저희를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께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거주권을 받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7 만 5 천불이 넘는 집을 구매하는 것인데 저희를 포함하여 많은 선생님들께 큰 부담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도 거주권을 연장하여야 해서 진행절차를 밟았는데 1 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6 개월을 더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2 월에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데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손 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분 안에서 아름답게 동역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의 영 안에 깨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거주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들 언약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분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공동체 일원들이 늘었습니다. c & o 가정이 새로 공동체에 들어와 o 자매가 그 분을 영접했고 남편은 아직 영접은 안 했지만 계속해서 아내와 같이 모임에 나와 그 분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분을 믿지 않았지만 모임에 나와 그 분에 대해 알아가던 r 자매와 s 형제도 영접했습니다. 그 밖에 o 형제와 r 형제가 새로 모임에 나오고 있으며 함께 그 분의 대해 알아가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 o 자매, s 형제 그리고 o 형제가 그 분의 이름으로 s 례를 받았습니다. h 렀 r 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섬기는 지역이 종교적으로 강한 성향을 띄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 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1 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손 모음을 통해 1 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분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며 9 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 교제하고 있는 b 형제와 s 자매에게도 그 분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b 형제, c 형제, s 자매가 그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s 례를 받은 o 자매, s 형제, o 형제가 그 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손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략)

경제가 심하게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중 몇몇은 부모님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방학 때 대도시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러 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은 피부색이 달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난민가정 자녀들 또한 새 학기에 필요한 학용품들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맞이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그 분의 이름으로 돕고는 있지만 참 쉽지

#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2-5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많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두 가정이 1 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가운데 1 나님께서 78안에 장학제도를 두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음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장학금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며 대학생들은 성적에 편차를 두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성도들의 기초생활을 돕는 일과 장학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지만 1 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물질로 동역할 수 있으신 분들을 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성도들과 학생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재정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위해 손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략)

난민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그분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젊은 청년분들을 위해 간절히 손 모으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부르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며 아이들을 위해 함께 섬기실 수 있는 젊은 청년분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컴퓨터, 음악, 영어회화, 미술, 운동 등 1 나님께서 청년분들께 허락하신 재능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무엇이든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 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젊음의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공황이 여기서사 죄를 사하시며 회복하실 것(역대하 7:14~16)을, 또 이 땅의 영혼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열방을 바라보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선교 증보 기도 모임

선교부에서는 오늘을 시작으로 **매달 첫째 주일** 선교지를 위한 증보기도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각자 처소에서 하던 합심증보기도를 대면 기도모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역하는 일이 쉬지 않도록 함께해 주세요.

###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감비아	한병희	안신년 이후 개척할 학교사역과 입양공동체사역.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어린이 복음사역.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지인들의 생활고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LIR) 정부 승인과 적합한 교장선생님 청빙을 위해. 미국에서의 "Gushima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
스리랑카	정은범	국가의 정치,경제 위기극복과 극빈 가정들의 삶을 보호하시길(마약과 알코올) 한국 선교사님들의 안전. 한국의 세 자녀들. 재개하는 신학교 강의.
아리조나	모니카 리	교인들의 가정들이 믿음. 수요 기도 모임.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필리핀	김대영	필리핀 사역의 재개, 안식월 동안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T국	장과장&주열매	리더 훈련 수료한 H가정의 사역 시작.
CRU	한정혜&데미안 브룩스	리더십 프로젝트 사역들. 선교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코스타리카	금상호	바른 복음의 재교육, 인디오 지역의 구제와 말씀 사역, 현지인 리더훈련